‘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취업률 73.2%, 수도권 북부 최상위 수준

서정대학교

국가 기능장, 최근 11년간 39명 배출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총 5526개
간호학과만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수시 최초 합격자, 입학장학금 30만원

올해 개교 18주년을 맞은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면·비대면 수업으로 대응하며 학생들의 교육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취·창업 경쟁력을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에도 각별히 힘쓰고 있다. 덕분에 서정대의 취업률은 수도권 북부 최상위 수준인 73.2%(2019년 12월 31일 공시 기준)에 달한다.

최근 서정대는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지원(대학 지원 사업비)을 받는다. 이에 서정대는 대학 발전 계획을 토대로 지속적인 혁신을 진행하고 학생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취업 명문대 목표

지난 3년간 서정대 졸업생의 69명이 공무원에 합격했다. 2013년부터 서정대 졸업자의 총 공무원 합격자 수는 128명에 달한다. 또한 항공관광과는 졸업생이 배출된 첫해인 2020년 4명이 지상직 승무원으로 선발됐다. 유아교육과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2회 연속 A등급을 받아 취업률 90%를 기록하고 있다.

서정대 학생들은 국가 자격증 취득과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최고 기술 자격인 국가 기능장 합격자는 지난 11년간 총 39명이 배출됐다. 2012년부터 서정대 학생들이 취득한 산업기사·기능사 등 자격증은 총 5526개에 이르며 국가기관장상 등 국내외 각종 경진대회 수상자는 4189명을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간호학과·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인천에 위치한 서송병원에서 실습과 취업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 서정대 관계자는 “취업연계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며 “취업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시 합격자에 입학장학금 30만원 지급

올해 서정대의 수시 모집인원(수시 1차)은 828명이다. 전형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정원 내는 일반전형(527명)과 특별전형(210명)으로 나뉘며, 정원 외는 ▲농어촌 전형(10명) ▲기회균형 전형(30명) ▲전문계고졸 재직자 전형(7명) ▲서해5도 전형(13명) ▲전문대졸 전형(31명) 등이 있다. 간호학과는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통해 간호교육 인증을 받았다. 올해도 간호학과(일반전형)는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반영된다. 국어·수학·영어 중 3개 영역 합산 등급이 18등급으로 적용됐다. 간호학과 외 다른 과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신성적 반영은 1·2학년 4개 학기 중 우수한 2개 학기 100%로 이뤄진다. 성적 반영 비율은 일반전형(정원 내)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의 경우 면접 60%(150점) + 학생부성적 40%(100점), 면접 미실시과는 학생부성적 100%로 이뤄진다. 특별전형도 학생부성적 100%로 반영된다.

면접을 보는 곳은 ▲뷰티아트과 ▲응급구조과(3년제) ▲간호학과(4년제) ▲글로벌융합복지과 ▲글로벌산업공학과 등이 있다.

서정대 제공

특히 주목할 점은 2022학년도 서정대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는 입학 장학금 3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서정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약 220억원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했다”며 “학생들이 오롯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2개 이상의 학과 및 전형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고교유형(인문계·특성화고·검정고시)에 관계없이 일반전형에 지원 가능하다.

면접은 10월 15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세부 시간과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면접 참석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해당 학과와 면접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10월 29일에 발표될 계획이며, 합격자 등록은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영희 서정대 총장은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창의성을 갖춘 전문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고 미래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웅지세무대 제공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배출 ‘전국 1위’

〈2020년 제57회〉

웅지세무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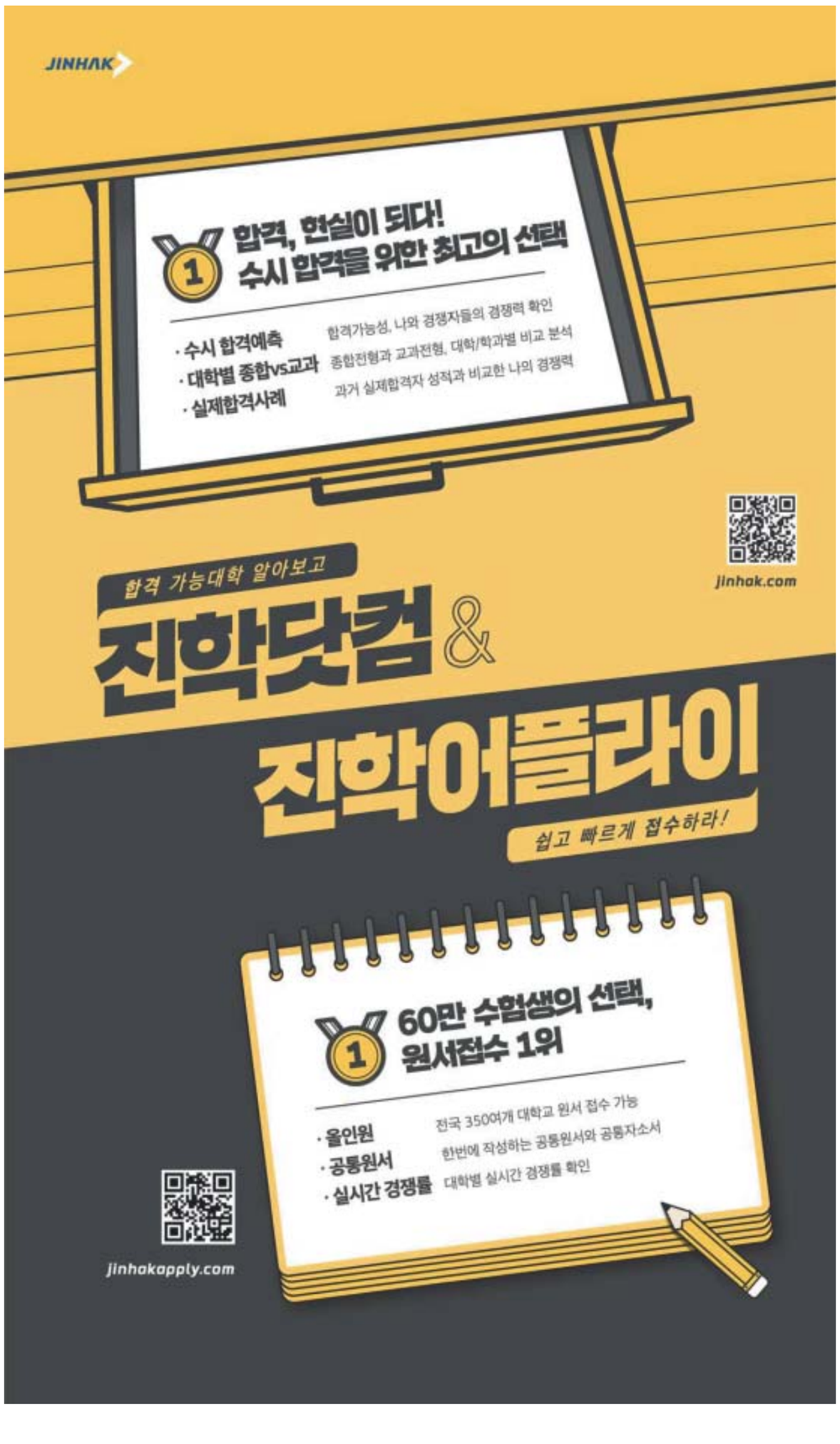
경기 파주에 위치한 웅지세무대학교(총장 최광필)는 ‘글로벌 시대를 리드하는 회계 세무 전문 인력을 양성해 21세기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창학 이념으로 2004년에 설립됐다. 공인회계사를 비롯해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꼭 맞는 학사시스템을 제공하는 3년제 전문대학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웅지세무대는 2020년 제57회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수 전국 대학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유일의 회계 세무 특성화 대학으로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세무사 시험 합격자 수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또한 2006년 이래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최연소 합격자도 다수 배출한 바 있다.

웅지세무대는 2022학년도부터 세부 전공에서 성과를 더욱 확실히 낼 수 있도록 기존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전환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입생들은 ▲회계 세무 분야의 최고 자격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의 취득 및 실무에 적합한 회계세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회계세무정보과 ▲7·9급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세무행정과(행정직, 군무원 교육과정 포함) ▲부동산 분야의 최고 자격증인 감정평가사 취득과 감정평가 전문가 및 부동산 전문가 배출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감정평가과 ▲공기업 취업에 특화된 NCS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실무 자격증 취득 등 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경영과 등 4개의 학과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맞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웅지세무대가 회계 세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시험 대비 최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됐기 때문이다. 개교 이래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10시 30분까지 자기 학습을 하고, 고시반, 지도교수 상담제, 심화 학습제, 진도별 수시고사, 시험 대비 스터디 등 전문 자격증 취득과 시험 합격에 최적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웅지세무대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우선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Ⅰ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올해부터 파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파주 100인 장학회 장학금’ 및 ‘발전기금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내신 또는 수능 영어 성적 3등급 이내인 학생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재학 중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시험 등에서 1차 또는 필기에 합격하면 수업료 반액, 최종 합격하면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혜택도 있다. 서덕주 교학처장은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나 세무직, 행정직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한편 수시 1차 모집은 9월 10일(금)부터 10월 4일(월)까지다. 수시 2차 모집은 11월 8일(월)부터 11월 22일(월)까지 진행된다. 웅지세무대 측은 “2021년 세무직 공무원 선발 인원이 확대됐고, 2022년부터는 선택과목이었던 세법, 회계학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회계 세무대학 특성상 더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